



#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곽 혜 선 \*

◆ 한국의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독일이 자발적으로 추가 적용하는 농식품 규정과 표준을 따르지 않아도 독일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지만, 독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추가 규정과 표준을 따르는 편이 유리할 것임◆

## 1 서론

- 2021년 독일의 국가별 농식품 수입액(590억 9,977만 달러) 순위에서 한국은 53위(7,261만 달러)에 그쳤으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한국 식품 수요가 늘어나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017~2021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2).
  - 한국의 전체 농식품 수출액에서 對독일 농식품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0.12%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對독일 수출액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임(그림 1). 이처럼 한국-독일 간 농식품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본 고에서는 한국의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을 살펴보자 함.

| 그림 1. 한국의 對독일 농식품 수출액 추이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hyesunk@krei.re.kr).

본 고는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Germany.”의 일부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임.



##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독일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유럽연합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을 따르고 있으나, 독일이 국내에 추가로 적용하는 규정과 표준이 있음. 독일이 추가로 적용하는 규정의 예시로는 자발적 영양 표시(신호등 시스템/뉴트리 스코어(Nutri-Score)),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 유럽연합 기준과 조화되지 않은 특정 오염물질/제품 조합의 최대치가 있음. 이에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중에서 유럽연합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과 아직 조화되지 않은(not yet harmonized) 규정과 표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 2 일반 식품법(General Food Laws)

- 독일의 식품, 생활필수품 및 사료법(Lebensmittel-Bedarfsgegenstaende-und Futtermittelgesetz buch, LFBG)은 독일 대부분 식품과 사료 관련 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법은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규정과 지시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식품, 생활필수품 및 사료법은 일반적인 식품 안전과 보건 규칙을 정의, 식품 표시 기준을 규정, 식품 검역을 규제하는 등 독일 국내 식품과 수입 식품에 모두 적용되며, 독일에 수입된 식품에 관한 법적 책임과 적합한 판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독일 내 수입업자에게 부과됨.
- 또한, 독일의 법 집행기관은 해외 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법권이 없기에 식품, 생활필수품 및 사료법의 어떤 위반에 관해서든 독일의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음. 단속 권한은 독일의 각 16개 연방 주에 모두 있어 식품, 생활필수품 및 사료법의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주마다 협용 여부가 다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3 식품 표시(Labeling) 요건

#### 3.1. 일반 요건

- 독일은 식품 표시의 규정과 표준에 관해서 유럽연합의 법을 따르고 있다. 유럽연합의 식품 표시법인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FIC) 규정 No 1169/2011은 유럽연합 비회원국에서부터 수입된 것을 포함해서 유럽연합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 식품과 음료에 적용됨. 따라서 식품 표시의 일반 요건은 FIC 규정 No 1169/2011을 참고하면 되므로 본 고에서는 독일이 추가로 적용하는 식품 표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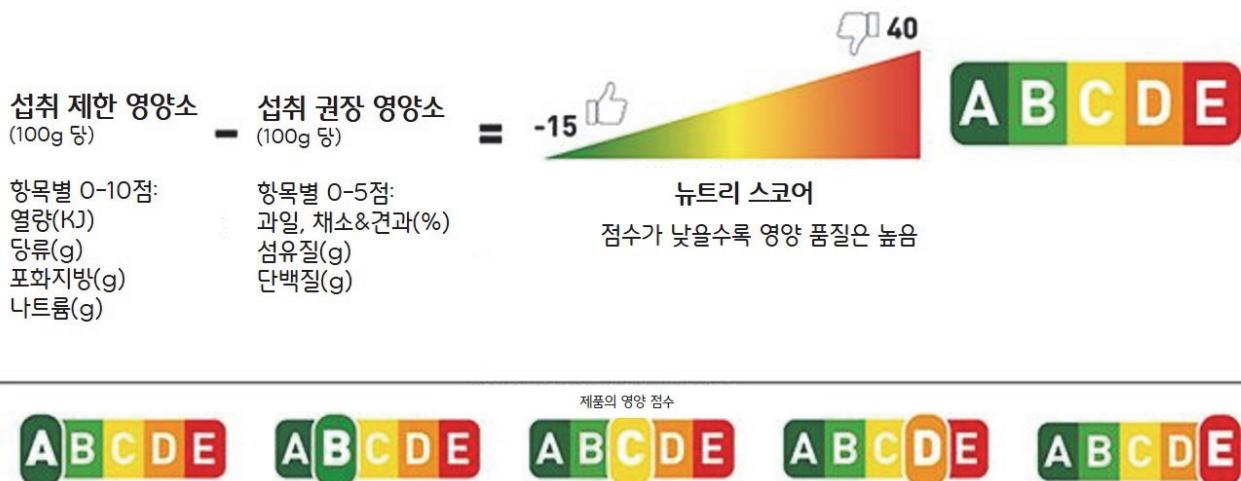
##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3.1.1. 자발적인 추가 영양성분 표시

- 독일은 일반적인 의무 영양성분 표시에 더해서 자발적인 상품 전면(front of pack) 신호등 표시 시스템을 도입함.

- 2020년 11월 6일부터 독일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프랑스의 뉴트리 스코어(Nutri-Score) 시스템(<그림 2>)<sup>1)</sup>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독일은 비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폭넓은 영양성분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그림 2. 자발적 영양성분 표시 예시-뉴트리 스코어 |



자료: TATE&LYLE(<https://www.tateandlyle.com/news/what-nutri-score-and-why-should-food-and-drink-manufacturers-work-towards-better-ratings>, 검색일: 2022.12.14.) 자료 저자 번역 및 가공.

### 3.2. 기타 특정 요건

#### 3.2.1.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

- 독일은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따르고 있음. 독일은 쇠고기에는 유럽연합의 쇠고기 식품 의무 표시제(compulsory beef labeling system)를 적용하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가금류의 고기에는 유럽연합 위원회 시행세칙(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No 1337/2013를 적용함. 독일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 경우 유럽연합의 쇠고기 식품 의무 표시제 이외에도 업계에서 추가로 도입한 표시 제도가 있으므로 쇠고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함.

1) 뉴트리 스코어(Nutri-score)는 프랑스 연구기관인 EREN에서 개발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라벨로 녹색부터 빨간색까지 5단계의 색으로 표시하며, 제품 100g에 함유된 섬유질, 단백질, 포화지방, 열량, 나트륨, 당류 기준으로 가장 건강한 식품에는 녹색 A등급, 가장 건강하지 않은 식품에는 빨간색 E등급으로 표시됨(KOTRA 해외시장뉴스. (2019. 7. 8.). “이탈리아, 새로운 영양 분류체계에 우려 목소리 높아” 참고).



##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유럽연합은 2000년 이후 쇠고기 식품 의무 표시제를 도입했으며, 동 식품 표시는 가축과 고기 사이의 연결을 보장할 수 있는 조회번호, 일일 최대 생산량을 나타내는 고기와 가축 관계를 추적 가능한 번호, 그리고 〈표 1〉의 정보를 포함해야 함.

| 표 1. 쇠고기 식품 의무 표시제의 의무 표시 정보 |

의무 표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생 장소(Geboren in): [제3국 명칭(name of third country)]</li> <li>- 비육 장소(Gemästet in): [제3국 혹은 제3국들의 명칭]</li> <li>- 원산지(Ursprung): [제3국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제3국 내에서 탄생, 비육, 도축된 가축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는 위의 탄생 장소 및 비육 장소를 이와 같이 합쳐서 표기할 수 있음</li> </ul> </li> <li>- 도축 장소(Geschlachtet in): [제3국 명칭/도축장의 승인 번호]</li> <li>- 가공 장소(Zerlegt in): [제3국 명칭/가공 공장의 승인 번호]</li> </ul>

자료: USDA(2022).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Germany.

- 유럽연합의 쇠고기 식품 의무 표시제 이외에도 독일 식품계에서는 상품이 생산지에서부터 판매 장소까지 모든 과정이 관리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품질과 안전(Quality and Safety, QS)’ 식품 표시 제도를 도입하였음.
  - ‘품질과 안전(QS)’ 식품 표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요구사항과 업계에서 정한 생산공정에 기반한 입증 서류가 필요하며 동 식품 표시 제도에는 독일 국내 제품과 수입품 모두 참여할 수 있음.

### 3.2.2. 비(非)유전자변형 식품 표시(GMO-free labeling)

- 2008년 5월 독일 정부는 자발적인 비(非)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제도를 수립하였음. 2009년 8월에 독일연방 식품농업부(the Ministry for Food and Agriculture, BMEL)는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과 비(非)유전자변형 식품을 더 잘 구별하도록 돋고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하여 접하는 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식품 표시를 도입함.

### 3.2.3. 식이요법 식품 조례(Dietetic Foods Ordinance)

- 독일의 식이요법 식품 조례는 생산자가 식이요법이라는 식품 표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식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특징을 정의함. 동 조례에 따르면 식이요법이라고 표시된 식품과 음료는 반드시 일반 식품과는 현저히 달라야 함.
- 또한, 식품 표시의 단순한 영양성분(nutrient content)이나 칼로리량(caloric value) 목록만으로는 “식이요법(dietet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건강과 관련된 표현은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독



##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일로 수출하려는 업체는 농식품에 식이요법 관련 표시를 하기 전에 독일의 식품 연구실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됨(<표 2>).

| 표 2. 독일에서 사용이 제한된 식이요법 관련 건강 표시의 예 |

원문	번역(독-한)
“Diätetisches Lebensmittel geeignet zur Behandlung von ...”	“...을 치료하기에 적합한 식이요법 식품”
“Diätetisches Lebensmittel geeignet zur Behandlung von... nur unter ständiger ärztlicher Kontrolle verwenden”	“지속적인 의사의 지도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 치료에 적합한 식이요법 식품”
“Zur besonderen Ernährung bei... im Rahmen eines Diätplanes”	“식이요법계획의 일부로 ...를 위한 특별식”

자료: USDA(2022).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Germany.

### 3.2.4. 식물성 고기(Plant-based Meat) 및 대체 유제품(Dairy Alternatives)

- 2017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식물성 제품은 “치즈”, “버터”, 또는 “우유”와 같은 유제품 품명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 유럽연합 위원회 결정(Commission Decision) No 2010/791은 정해진 유제품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비(非)유제품(non-dairy products)에 관한 예외 목록을 정하고 있음.
  - Kokosmilch(Cocos milk, 코코넛우유), Erdnussbutter(Peanut butter, 땅콩버터), Kakaobutter(Cocoa butter, 코코아버터), Milchmargarine(Milk margarine, 우유 마가린), Margarine Streichkäse(Margarine cheese spread, 마가린 치즈 스프레드)가 위원회 결정 No 2010/719 하에 사용이 허용되는 명칭들임.
  - 이 외의 다른 식물성 대체 유제품에는 “우유”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관행상 주로 “음료(drink)”라고 표현함(“아몬드 우유(Mandelmilch)” 대신에 “아몬드 음료(Mandel Drink)”).

## 4

### 포장재(Packaging) 및 용기(Container) 규정

#### 4.1. 지속가능한 포장재를 위한 조치(Packaging Sustainability Measures)

- 독일은 포장재 및 용기에 관해서 유럽연합의 조화된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포장재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포장재 폐기물과 포장재의 재활용에 관해서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포장된 소비재(식품 포함)의 공급자가 소비자로부터 포장재를 수거하고 재활용할 의무가 있으며, 공급자는 제삼자에게 동 의무를 위탁할 수 있음. 이에 독일의 다수의 공급자가 인가받은 재활용 업체/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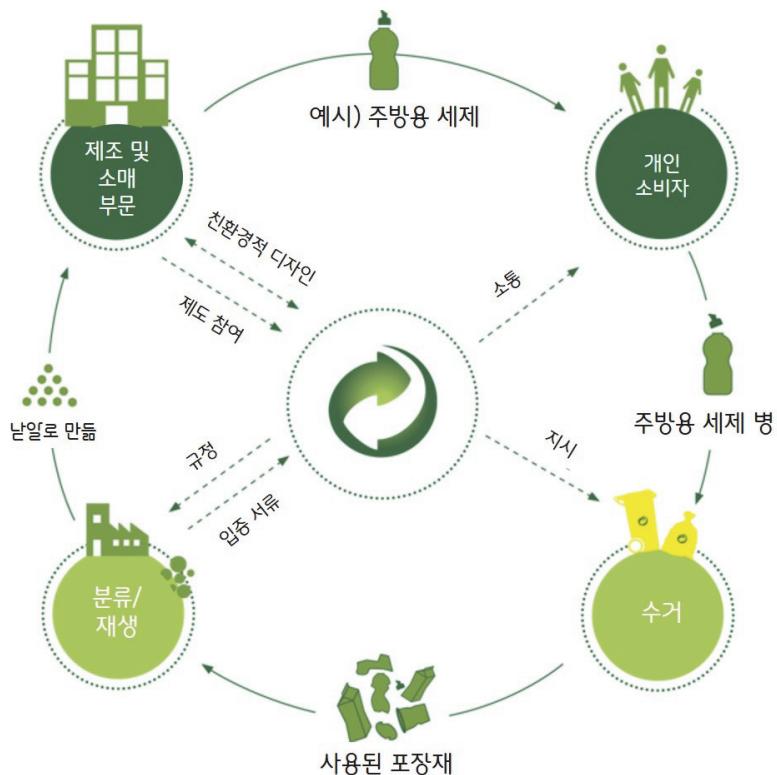
### 4.1.1.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 - 그린 닷 시스템(Green Dot System)

- 2019년 1월 1일 독일은 포장재 및 폐기물 방지 조례(Verordnung ue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aellen, VerpackV)를 대체하여 적용할 새로운 포장재 법(Verpackungsgesetz, VerpackG)을 도입함. 동 포장재 법은 소비재의 생산자, 수입자, 공급자가 인가된 재활용 업체와 포장재의 재활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음.
- 제조자는 포장된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하기 전에 중앙 관청(Zentrale Stelle)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
- 모든 제조자(manufacturer)는 등록 번호,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 종류와 부피, 생산자에 의해서 계약된 포장 계획의 이름, 재활용 업체/시스템과 맺은 계약의 지속 기간 정보 등을 중앙 관청에 보고해야 함.
- 제조자(manufacturer)는 생산자, 수입자, 공급자가 포함되며, 수출품의 유통 채널에 따라서 외국의 수출자도 중앙 관청에 등록하고 포장재 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할 수도 있음.
- 전통적으로 독일 산업계는 관리되는 시스템을 통해 포장재가 재활용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닷(Green Dot)” 상징을 사용했음(<그림 3>). “그린 닷(Green Dot)”은 사실상 독일에서 소매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었으나 2009년 1월 이후 재활용 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재활용됨을 알리기 위해서 제품의 포장재에 “그린 닷(Green Dot)”을 더 이상 표시하지 않아도 됨.
- 하지만, 제조자나 수입자가 “그린 닷(Green Dot)”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듀얼 시스템 도이칠란트(the Duales System Deutschland GmbH, DSD)나 기타 업체와 유효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그림 3. 그린 닷 시스템(Green Dot system) 체계도 |



자료: Der Grüne Punkt(<https://www.gruener-punkt.de/en/politics-and-society/consumer-information>, 검색일: 2022.12.14.) 자료 저자 번역 및 가공.

### 4.1.2. 일회용 음료 포장재 의무 보증금 제도

- 0.1~3.0L 용량의 일회용 음료 포장재는 독일의 의무 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보증금 (Pfand)은 소매 단계에서 부과되며 독일 국내에서 생산 혹은 병에 담긴 제품과 수입된 제품에 적용됨. 2021년까지 <표 3>에 제시된 음료를 담는 용기는 보증금 제도에서 제외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동 예외는 플라스틱이나 캔으로 만든 용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표 3. 의무 보증금 제도 예외 음료 |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채소 주스</li> <li>- 무탄산 과일·채소즙</li> <li>- 우유 또는 최소 50% 이상의 우유를 포함한 우유 혼합 음료</li> <li>- 영유아를 위한 식이요법 음료</li> <li>- 증류주 또는 최소 50% 이상의 와인을 포함한 와인 혼합 음료</li> <li>- 다중 카본(carton) 포장재와 관 모양의(tubular) 폴리에틸렌(polyethylene) 봉투(환경에 부담이 가장 적다고 여겨지므로 제외됨)</li> </ul>

자료: USDA(2022).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Germany.



##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의무 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품의 식품 표시에는 <그림 4>의 의무 보증금 제도 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그림 4. 의무 보증금 제도 표시 |



자료: Ein Weg Mit Pfand(<https://einweg-mit-pfand.de/einweg-mit-pfand.html>, 검색일: 2022.12.19.).

### 4.1.2.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법

- 독일은 2021년 7월 3일부터 빨대, 접시와 식기류, 포장 용기, 스티로폼으로 만든 음료 용기 및 컵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독일로 간편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독일의 수입업체에 해당 상품이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법에 적용받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권장됨.

### 4.2. 식품 접촉 물질(Materials in Contact with Foodstuffs)

- 독일은 모든 식품 접촉 물질에 관한 유럽연합의 규정을 따르며, 추가로 유럽연합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재생자로 만든 식품 접촉 물질과 포장재에 기능성 보호막 사용을 의무화하는 독일 국내 상정 법안을 통보하였음. 동 상정 법안은 식품 접촉 물질에서 식품으로 미네랄 오일 방향족 탄화수소(Mineral Oil Aromatic Hydrocarbons, 이하 MOAH)가 전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입법 목적임.

- 암 유발 가능성에 관해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인 MOAH는 종이가 미네랄 오일을 사용한 잉크로 인쇄되었다면 재생자로 만든 식품 접촉 물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동 상정 법안의 규제 대상임. 그러나 MOAH 전이가 정해진 검출 한계 미만이라면 기능성 보호막이 필요 없음.



##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5 농약(Pesticides) 및 기타 오염물질(Contaminants)

#### 5.1. 농약(Pesticides)

- 독일의 잔류농약 허용치는 유럽연합의 규정 (EC) No 396/2005과 합치되어 있으나, 일부 소매 유통체인에서는 홍보의 일환으로 공급업체에 유럽연합 규정을 넘어서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 특정 소매 유통체인은 유럽연합이 규정한 개별 최대 잔류기준의 30%, 50%, 또는 70% 수준으로 엄격하게 잔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5.2. 오염물질(Contaminants)

- 독일의 오염물질류 허용치는 유럽연합 규정 (EC) No 1881/2006과 합치되어 있으나,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아플라톡신(aflatoxin),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질산염(nitrate), 할로겐계 용매(halogenated solvents), 비다이옥신 유사 폴리염화비페닐(non-dioxin-like polychlorinated biphenyls, ndl-PCB)의 최대 허용기준치는 독일의 부가적인 기준을 적용 함(<표 4>).

| 표 4. 독일의 부가적인 오염물질 최대 허용기준 |

구분		최대 허용기준
아플라톡신 (aflatoxin)	유럽연합 규정 (EC) No 1881/2006 부록 섹션 2의 2.1에 언급된 식품, 식품 조제용 효소(enzymes)와 효소제(enzyme preparations), 신생아나 유아용 식이요법 식품을 제외한 식품	B1: 2 $\mu$ g/kg B1, B2, G1 및 G2의 합: 4 $\mu$ g/kg
	식품 조제용 효소와 효소제	B1, B2, G1 및 G2의 합: 0.05 $\mu$ g/kg
	유럽연합 규정 (EC) No 1881/2006 부록 섹션 2의 2.1.15, 2.1.16, 그리고 2.1.17에 언급되지 않은 신생아나 유아용 식이요법 식품	B1, B2, G1 및 G2의 합: 0.05 $\mu$ g/kg M: 0.01 $\mu$ g/kg
오크라톡신 A (ochratoxin A)	유럽연합 규정 (EC) No 1881/2006 부록 섹션 2의 2.2.3에 언급된 식품(건조된 덩굴 식물의 과실: 커런트(currant), 건포도(raisin), 씨 없는 건포도(sultana))과 건조 무화과(dried figs)를 제외한 식품	2.0 $\mu$ g/kg
	건조 무화과	8.0 $\mu$ g/kg
질산염 (nitrate)	유럽연합 규정 (EC) No 1881/2006 부록 섹션 1의 1.6에 언급되지 않은 신생아 혹은 유아용 식이요법 식품(가공된 곡물 기반의 식품과 신생아 혹은 유아용 이유식)	250mg/kg
할로겐계 용매 (halogenated solvents)	모든 식품 내 클로로포름(Trichlormethane)	0.1mg/kg
	모든 식품 내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ethene)	0.1mg/kg
	모든 식품 내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ethene)	0.1mg/kg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합계	0.2mg/kg



##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구분	최대 허용기준
비다이옥신 유사 폴리염화비페닐 (ndl-PCB)	지방 함량 10% 이하인 말, 염소, 토끼, 엽조, 멧돼지 및 야생 동물의 고기 트리클로로비페닐(Trichlorbiphenyl)-28, 테트라클로로비페닐(Tetrachlorbiphenyl)-52, 펜타클로로비페닐(Pentachlorbiphenyl)-101, 헵타클로로비페닐(Heptachlorbiphenyl)-180 헥사클로로비페닐(Hexachlorbiphenyl)-138, 153: 각 0.008mg/kg
	유럽연합 규정 (EC) No 1881/2006 부록 섹션 5.1에 언급되지 않은 지방 함량 10% 이하인 식육가공품 트리클로로비페닐(Trichlorbiphenyl)-28, 테트라클로로비페닐(Tetrachlorbiphenyl)-52, 펜타클로로비페닐(Pentachlorbiphenyl)-101, 헵타클로로비페닐(Heptachlorbiphenyl)-180: 헥사클로로비페닐(Hexachlorbiphenyl)-138, 153: 각 0.008mg/kg
	지방 함량 10% 초과하는 염소, 멧돼지 및 야생동물의 고기 트리클로로비페닐(Trichlorbiphenyl)-28, 테트라클로로비페닐(Tetrachlorbiphenyl)-52, 펜타클로로비페닐(Pentachlorbiphenyl)-101, 헵타클로로비페닐(Heptachlorbiphenyl)-180: 헥사클로로비페닐(Hexachlorbiphenyl)-138, 153: 각 0.01mg/kg
	유럽연합 규정 (EC) No 1881/2006 부록 섹션 5.9에 언급된 식품 이외의 달걀과 난제품 트리클로로비페닐(Trichlorbiphenyl)-28, 테트라클로로비페닐(Tetrachlorbiphenyl)-52, 펜타클로로비페닐(Pentachlorbiphenyl)-101, 헵타클로로비페닐(Heptachlorbiphenyl)-180: 헥사클로로비페닐(Hexachlorbiphenyl)-138, 153: 각 0.02mg/kg
	각 0.08mg/kg
	각 0.1mg/kg
	각 0.02mg/kg

주 1)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질산염의 최대 허용기준은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적용됨.

2) 할로겐계 용매의 최대 허용기준은 제공되는 형태에서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의 총중량에 적용됨.

3) ndl-PCB 종류에 부과된 번호는 국제 순수·응용화학연맹(IUPAC)의 체계적인 명명법을 따른 것임.

4) 지방 함량 10% 이하의 식품의 ndl-PCB 최대 허용기준은 뼈 없는 제품에 적용되며, 지방 함량 10% 초과의 식품의 경우는 식품에 포함된 지방에 적용되며, 달걀과 난제품의 경우는 난각을 제외하고 식품에 사용된 달걀 총중량에 적용됨.

자료: USDA(2022).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Germany.

## 6 기타 특정 표준(Other Specific Standards)

### 6.1 신선식품 대상 사설 인증(Private Certification)

■ 참여가 자발적이긴 하지만 독일에서는 다수의 소매 유통체인에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을 요구함.

- 독일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설 인증 제도로는 GLOBALG.A.P와 QS가 있는데 QS는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받아서 취급하는 도매업자부터 소매 유통체인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반면, GLOBALG.A.P는 생산자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GLOBALG.A.P와 QS 두 제도 및 기준의 준수, 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외국의 생산자도 사설 인증 제도에 참여 가능하며, 생산자 단계에서 GLOBAG.A.P와 QS 인증을 모두 받는 것도 가능함.

### 6.2 채식주의자 및 엄격한 채식주의자 식품, 식물성 고기 및 대체 유제품

- 유럽연합의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FIC) 규정(1169/2011)은 유럽위원회에 “채식주의자 및 엄격한 채식주의자에게 적합한(suitable for vegetarians and vegans)”이라는 자발적인 식품 표시를 위한 규칙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음.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채식주의자(vegetarian)”와 “엄격한 채식주의자(vegan)”의 유럽연합 내 합의된 정의를 아직 채택하지 못했음.
- 동 용어들의 법적인 정의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독일은 소비자 집단, 식품 안전 당국, 산업계, 연구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발한 구속력이 없는 지침을 채택함.

## 7 시사점

- 2021년 기준 한국의 對독일 농식품 수출액(7,261만 달러)이 한국의 농식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2%에 불과하지만, 對독일 농식품 수출액은 2017~2021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면역 증진에 관한 수요 증가와 한식이 건강한 메뉴라는 인식이 부합하여 독일 내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2).
- 對독일 농식품 수출액과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흐조에 부응하여 독일의 수입 농식품 규정과 표준의 변화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농식품 규정과 표준은 전반적으로 유럽연합의 표준과 합치되어 있지만, 독일이 자발적으로 채택한 추가 표준이 있어 농식품을 수출할 때 주의가 필요함. 독일의 추가 농식품 규정과 표준은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아 농식품 수출에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식품 표시와 같은 농식품 규정과 표준은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자발적인 식품 표시와 연계된 상품을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더 품질이 높고, 건강하고 안전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유럽위원회, 2013).
- 한국의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독일이 자발적으로 추가 적용하는 농식품 규정과 표준을 따르지 않아도 독일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지만, 독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추가 규정과 표준을 따르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따라서 독일이 유럽연합 규정 외에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의 최신 변화 사항을 독일로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에 공지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함. 또한, 농식품 수출업체가 의무 및 자발적인 식품 규정과 표준으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임.

### 참고문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2. 농식품 주력국가 심층조사-독일-. [http://www.kati.net/board/reportORpublicactionView.do?board\\_seq=95791&menu\\_dept2=49&menu\\_dept3=367](http://www.kati.net/board/reportORpublicactionView.do?board_seq=95791&menu_dept2=49&menu_dept3=367). 검색일: 2022.12.13.
-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3. Consumer markety sutdy on the functioning of voluntary food labelling schemes for consumers in the European Union.
- USDA. 2021.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Germany. USDA. <https://www.fas.usda.gov/data/european-union-food-and-agricultural-import-regulations-and-standards-country-report>. 검색일: 2022.12.13.

### 〈참고사이트〉

KOTRA 해외시장뉴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75976](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75976)). 검색일: 2022.12.19.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3. 20.

Der Grüne Punkt(<https://www.gruener-punkt.de/en/politics-and-society/consumer-information>). 검색일: 2022.12.14.

Ein Weg Mit Pfand(<https://einweg-mit-pfand.de/einweg-mit-pfand.html>). 검색일: 2022.12.19.

TATE&LYLE(<https://www.tateandlyle.com/news/what-nutri-score-and-why-should-food-and-drink-manufacturers-work-towards-better-ratings>). 검색일: 2022.12.14.